

##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 □ 출장목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MI 중국연구센터 현지 평가 수감 지원
- 중국연구센터 사업 및 일반연구 진행 상황 중간 점검

### □ 출장자

- 김선기 연구관리실장, 조승우 사무원

### □ 출장일정 및 출장지

- 출장일정
  - 2019. 7. 15(월) ~ 7. 18(목) (3박 4일)
- 출장지 : 중국 상해

일자	방문일정	내 용	비고
7.15(월)	김해 > 상해	- 09:50 김해 출발 - 10:35 상해 푸둥 도착 - 13:00~18:00 현지 평가 관련 실사준비 - 19:00~20:00 연구회 평가단 영접 및 평가 관련 세부사항 사전 조율	OZ0311 중국연구센터
7.16(화)	상해	- 09:00~12:00 현지 평가 관련 준비사항 최종 점검 - 13:00~16:00 해외사무소 평가(실사)	중국연구센터
7.17(수)	상해	- 09:00~12:00 평가결과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 논의 - 13:00~15:00 중국연구센터 사업/일반연구 점검 - 15:00~17:00 2019 해외사무소 평가 준비 체크리스트 정리	중국연구센터
7.18(목)	상해 > 김해	- 11:40 상해 푸둥 출발 - 14:20 김해 도착	OZ0312

## 2018년 실적 KMI 중국연구센터 실사평가 수감지원

### □ 배경 및 목적

- 연구회는 2018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자체실적보고서 제출 (18.6.) 이후, 애로사항 개선 및 중장기 센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현지 사무소 평가를 실시함
- 이에 따라 연구회 방문평가 및 평가단의 건의사항 등 자체실적보고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 실사평가 개요

- 일시/장소: 2019. 7. 16.(화)
- 참석자( 8명)
  - 평가단: 이희옥(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남주 평가위원(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연구회: 최재녕 평가기획부장, 강산하 평가기획부원
  - KMI: 김형근 중국연구센터장, 김세원 전문연구원/김선기 연구관리실장, 조승우 사무원
- 보고 방식
  - 센터장 사업실적 보고
  - 평가위원 질의 및 의견 전달 / KMI 회답
- 보고자료
  - KMI 중국연구센터 2018년도 실적 자체평가 보고자료(PPT)
  - KMI 중국연구센터 2018년도 실적보고서(연구회 기제출 자료)

## □ 실사평가 회의록

- 평가단) 전년도 대비해서 KMI가 가장 인상적으로 했던 프로젝트, 활동은 무엇인가?
  - KMI) 부산항만공사, 상해국제물류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42개 업체가 참여하는 토요간담회 개최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음
- 평가단) 다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 실적은 없는가?
  - KMI) 2018년도에는 실적이 미비하나,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연구원과 협동세미나를 추진하였고 7월경에 개최 예정임
- 평가단) 중국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중국리포트 등 메일을 활용한 정보제공서비스에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가?
  - KMI) 소폭 상승 중임
- 평가단) 베이징에 위치한 해외사무소는 중국내 소관부처가 공안국으로 변경되었는데, KMI는 공상국으로 유지하기 위해 취한 노력은 무엇인가?
  - KMI) 현지 부처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고, 연구회와 협력하여 국무조정실에서 KM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받았다. 경제개방의 중심인 상해의 지역적인 영향도 반영이 된 것 같음
- 평가단) 조직의 안정성 유지에서 관건이 예산인데 앞으로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산증가 요인은 무엇인지 유지할 수 있는지? 비용의 증가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 KMI) 일반예산의 간소화가 추세이라 현지 사정과는 관계없이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2016년 현 원장님 취임 이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건의를 드려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일반예산이 아닌 고정예산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음

- 평가단) 사업부서는 예산의 크기가 곧 활동의 크기인데 다른 사업비의 일부를 상해센터 활동에 지원(전도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도 줄어든 것인가
  - KMI) 전도금부분은 해마다 편차가 있음
- 평가단) 행사나 세미나가 정말 핵심 사업이라면 예산변동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면 사업들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물론 다른 수요가 생기면 중심은 옮겨가지만 10번하던 세미나가 2번으로 준다던지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 수가 있다. 물류세미나, 워크숍의 사업의 성격이 질적으로 다른가?
  - KMI) 워크숍은 본원의 연구진이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원의 필요에 의해 유연하게 대응한다. 세미나의 경우 중국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준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중점논의·공유하는 자리이다. 해운국제포럼은 2020년에 대한 전망, 주요이슈 논의를 통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담당한다.
- 평가단) 중국파트너와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물류워크숍, 지역물류세미나, CEO포럼 이게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한국유관기관과 하는 행사면 기본적으로 성격이 같다. 이것을 비슷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 KMI) 중국연구센터의 사업들을 좀 더 중점사업 위주로 간소화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 평가단) 일반연구과제와 KMI 월간동향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 KMI) 일반연구과제는 수요를 제출하고 내부심의 선정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어 수행하였음. 월간동향은 중국연구센터 자체적으로 발간하던 중국리포트와는 별개로 본원의 동향분석사업에 참여를

한 것

- 평가단 의견) 4개의 해외사무소가 공통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을 다루는데 공동의 정보교류나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 평가단) 해운, 물류이외의 분야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 KMI)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시 교류하고 있으며, 수산부문에 대한 중국 내 출장 등을 연구원이 동행을 해서 통역, 지원을 하고 있음
- 평가단) 중국리포트에서 전체적인 연구분야별 비중은 어떠한가?
  - KMI) 24회 중 해양, 수산이 각 4회이고 나머지는 해운, 물류분야
- 평가단) 현지 영사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KMI) 중국지자체와 영사관이 협의를 할 때마다 중국연구센터도 참가하여 공동협의를 하고 있으며 관세영사와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분기에 1회씩 공공기관협의회에 참가하여 정보교류 하며 한진해운사태 등 중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 평가단)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올해의 개선활동은 무엇인지 여기서 생산하는 정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상적인 것이 많은데 심도 깊은 정보획득활동의 사례는 무엇인지
  - KMI) 네트워킹 부분은 기존의 인력풀을 수정·보완하고 2018년도 전체 중국리포트 중에 8건을 새로운 주제와 전문가를 발굴하여 외연을 확장하고 메일링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상하이수산협회(중국현지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 확충에 힘쓰고 있음. 정보획득활동은 중국항구협회에서 발간하는 발간지에 기고된 글 등 오프라인 매체에서 발췌된 정보를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음.
- 평가단 총평) 중국연구센터가 금년도에 기존에 사업과 더불어 많

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예산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을 위해 중국연구센터의 업무를 본원업무 수행, 세미나 개최, 현지 네트워킹, 중국리포트 발송 등을 갈래를 잡아 정리하고 중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선택과 집중을 하여 간소화 하는 것을 건의함

#### □ 평가준비 및 평가현장



#### □ 향후 업무 추진계획

- 2018년 해외사무소 평가결과(안)에 대한 소명의견 개선
-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본원 및 센터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 예정

## 중국연구센터 사업 및 일반연구 진행 상황 중간 점검

### □ 개요

- 일시/장소: 2019. 7. 17.(수)
- 참석자( 4명): 김형근 중국연구센터장, 김세원 전문연구원, 김선기 연구관리실장, 조승우 사무원
- 회의 주요 내용
  - 중국연구센터 사업/일반연구 점검
  - 평가결과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 논의

### □ 중국연구센터 일반사업 중간점검

- 중국물류리포트: 목표(연간 24회)에 맞추어 적기 발간 진행 중
- 행사
  - 중국물류포럼: 북한,러시아 접경지역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동북3성의 지방정부와 영사관과 연계하여 동북아물류포럼을 신양연구원과 공동 개최를 타진하고 있으나 난항이 예상됨. 불가할 경우 하반기에 훈춘의 포스코현대 종합물류센터와 현지대학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 예정
  - 베트남(하노이) 국제물류세미나: 본원에서 추진하는 한-베트남세미나(7.25) 연계하여 추진 중
  - 지역물류세미나: 사면에서 3월 개최하였으며, 7월 말경에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물류세미나 개최 예정
  - KMI-SISI 국제해운포럼: 11월 경 개최 예정으로 홀수년도는 KMI가 주도적으로 추진

- 중국 해운·항만·물류 CEO포럼: 타이완국제물류세미나(5.7)를 별도 계획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나, CEO포럼 개최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요청(예산, 업무량 고려 등), 하반기에 상해에서 2차 CEO포럼 추진 예정
- 기타 추가적인 워크숍들은 본원의 업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연구관리실 의견) 향후 실적보고서 작성 등에 대비하여 업무히스토리를 구축하고, 실적보고서에 주요실적으로 명기
- 중소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 2019년 대상인 3개 지역 설문조사 수행 완료(타이완지역은 한국기업수가 적어 표본수가 작아 제외)
- 중국정책수요 및 발굴: 정책동향연구본부 워크숍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였음. 북한관련 정보, 중국(노동신문 등) 정보 지원, 중국3대 전략에 대한 정보공유, 양회 및 당대회에서 나오는 정보를 주간동향 등으로 활용하여 제공
- 중국 내 산·학·연 인적네트워크 구축: KMI 업무와의 연계방안을 정리하는 사업을 지시받았으나, 현재 미진한 상황으로 하반기 추진예정
- 본원의 對중국 연구지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항만수요예측센터, FTA이행지원센터, 동북아 해운물류사업,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지원규모는 매년 변동이 있다. 매년 같은 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차별화 필요성을 느끼며, 본원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음.
- 해양분야 중국연구사업 기반 확대
  - 중국연구센터가 해양연구본부의 '동·황해 연구 싱크탱크 얼라이언스' 활동을 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본부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함
  - 일대일로사업에 북극해 분야도 포함되어 해단분야 또한 지원하는

#### 방안 마련 예정

- 해양정책워크숍은 미개최되었으나, 행사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 연구관리실 의견) 정책동향연구본부의 워크숍 참여로 대체
- 홈페이지 운영: 국무조정실 주관 보안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추진하였으나, 소요예산(3천만원 예상)의 문제로 본원과 협의가 필요함

#### □ 일반연구과제(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주요 정책 변화 및 우리나라 기업 활용방안 연구 : 해운·물류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과제의 제목은 수요자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해 선정
- 연구진척정도: 설문조사 진행 예정,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한 자료 취합 및 분석
- 연구관리실) 외부위탁연구의 진행 정도는 어떠한지?
- 중국연구센터) 위탁연구를 기존의 계획보다는 조금 축소된 범위로 진행 예정. 계약은 미체결된 상황
- 연구관리실) 외부위탁연구의 실적물 확인 시 연구윤리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기존 발표자료에 대한 표시 등)

#### □ 실사평가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 논의

- 평가실사 시기: 2019년 실적평가는 2020년 1월에 진행 예정으로 (기존 차년도 7~8월에서 개선) 평가실사에 대한 시기 조율
- 지적사항 논의1: 비슷한 성격의 행사 통폐합
- KMI-SISI 국제해운포럼은 파트너가 있어서 유지를 하고 중국물류포럼은 중국지역물류세미나로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행사를 통·폐합하여 주요행사를 개최할 때 작은 규모의 행사를 세

#### 부세션으로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연구관리실) 워크숍, 포럼, 세미나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행사의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점은 있음
- 중국연구센터) 대상청중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서 중국연구센터 소관행사의 연단위 계획 작성. 예산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 고려
- 연구관리실) 신입 센터장 부임 등 전환기에 맞추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구상 추진.
- 중국연구센터) 평가단의 지적사항을 기회삼아 개선실적으로 활용. 주요행사 위주로 진행하고 별도의 행사수요가 있을 경우 본원예산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존의 행사만으로도 본원의 전도금 없이는 매우 타이트함
- 연구관리실) 행사 통·폐합, 그룹화하고 다른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행사 위주로 가는 것 보다는 내실있는 연구활동으로 전환했다는 논리 강조. 중국내 학회에 참가하고 자료를 받고 논의하는 것은 어떤지
- 중국연구센터) 금년도에 행사에서 참가해서 받은 자료를 본원으로 보낸 실적이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함. 다만 상해해사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워크숍마다 연구원을 보내는데 내부행사 위주라 자료 확보나 사진촬영이 힘든 경우가 많음. 타 지역 행사의 경우 참가비용(출장비, 참가비)도 예산상 한계가 있음
- 지적사항 논의2: 중국 내 산·학·연 인적네트워크 구축
- 연구관리실) 중국연구센터와의 업무교류가 많을수록 KMI 연구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실적보고서 등에 기입하는 방향 / 각 연구부문별 인적네트워킹 허브를 구축하는 하는 방향 고려

- 중국연구센터) 외부의 인원추천 등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는 구축 가능한데, 전수에 대한 자료구축은 인원·예산상 한계가 있음.  
/ 인적네트워크 관리에 어려움이 다수 존재함 / 친한그룹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해야할 필요성은 공감
  - 연구관리실) 상하이수산협회 가입과 수산연구본부 업무를 연계하는 방안은 있는지?
  - 중국연구센터)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음. 본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협회에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넘겨주는 수준
- 지적사항 논의3: 연구분야별 비중
- 연구관리실) 해양, 수산분야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 중국연구센터) 항만분야도 지속적으로 다양화되었고 해양·수산 분야 또한 업무지원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다. '동·황해 연구 싱크 탱크 얼라이언스' 활동도 엄청난 일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음

#### □ 회의사진

